

산림 공익적 가치 과소 평가 말자



홍혜란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숲**은 우리에게 환경적·경제적 혜택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생명이 숲 가꾸기운동본부 홍혜란(37) 사무국장은 근래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숲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땀감이나 목재에서 산림 휴양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파괴와 국내환경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숲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홍국장은 91년 공해추방운동연합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됐다.

처음 회원으로 참가해 자원봉사로 일하게 된 것.

그러던중 교육강좌와 환경소식지 등을 접하면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활동하게 됐다.

홍국장은 숲은 우리에게 환경적 의미외에도 고부가 가치기능이 있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국토는 65%가 산지이며 이 산지에 조성된 숲의 나무들은 20~30년생으로 잘 가꾸어 주면 현재보다 3배나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다는 것.

3배로 커진 숲의 공익적 가치는 60조원이 넘고 매년 2백40억톤 이상의 맑고 깨끗한 물을 저장 공급한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게 하고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90% 이상 수입하는 목재를 매년 30억불 이상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더구나 매년 10만명 이상에게 10년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홍국장은 숲가꾸기 방법으로 가지치기와 숲아베기를 강조했다.

아직도 어른들은 「나무를 베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산림 복구과정에서 「No touch, only planting」 교육의 잘못을 지적했다.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햇빛이 잘 통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했다.

또 새와 야생동물이 찾아들며 생태계가 회복되고 산소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홍국장은 숲을 아이들 보살피듯 해야 한다며 「들어가면 안된다, 베

면 안된다」 등의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고 말했다. 또 유명한 산에만 좋은 숲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산만 찾아 다닌다. 주변 근교의 산을 찾아가도 숲의 여러가지 기능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생명의 숲에서는 숲을 느끼고 숲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서울근교에 4개의 시범림을 선정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화산과 관산 서울대 안양수목원, 광릉수목원 등이다. 이곳에서 일반시민과 학생들은 가지치기, 숲아베기, 덩굴제거 등 직접 숲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매년 식목일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무료로 묘목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홍국장은 지금 회원배가활동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단체의 홍보 및 회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체를 유지하고 대중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회원확보

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원들 수가 늘어날 때 일의 보람을 느낀다며 회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귀농운동본부와 함께 산촌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중이다.

임업노동력의 확보와 산촌활성화를 위해 귀농을 유도하고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일 등을 계획중이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다 숲과 친밀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홍국장은 전쟁과 경제적 성장으로 황폐화가 된 우리의 숲은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숲 복구로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되었다고 한다.

6·25전쟁이후 7㎡/ha에 불과하던 산림축적이 오늘날 56.3㎡/ha에 이르게 되어 지금 어느 산을 찾아가더라도 푸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

이 것은 지난 30년간 약 1백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는

피땀어린 노력의 댓가라고 말했다.

홍국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쉽게 숲을 접근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해서라도 계속 큰 도시보다 작은 소도시에서 그 지역에 맞는 환경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작은 바램으로 현재 사무실을 시민들이 숲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국장은 숲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숲을 편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